

“행동에 책임지고, 사회에 모범 될래요”

이젠 어엿한 성인, 마음 다잡고 학업 열중 ... 전통문화 체험 소중한 경험

고성문화원 '전통성년식' 참가 전유빈씨(경동대 2년)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으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39회 성년의 날을 맞아 고성문화원이 주최한 전통성년식에 참가한 경동대학교 컴퓨터 공학부 레저컴퓨터학과 2학년 전유빈씨(21세, 사진)는 이날 행사를 통해 새삼 성인이 되었음을 느꼈다고 했다.

전씨는 경남 김해 태생으로 어릴적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부친을 따라 속초에 정착했다.

전씨는 “교수님의 권유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막상 참가해 보니 그동안 전혀 몰랐던 우리나라 전통의식을 체험할 수 있어서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행사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의 사회적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했다.

전씨와 같은 학과 친구로 이날 행사에 함께 참가한 임은영씨(21세)는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친구와 함께 참가한 성년식이 매우 뜻 깊은 의미가 있었다”며 “이제부터 어엿한 성인

으로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사실 처음에 참가할 때만해도 느낌이 별로 없었다”며 “성년식을 하고 난 뒤에는 앞으로 모든 행동에 책임이 뒤따르는 걸 알고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전씨는 “앞으로 성인으로써 학업에 열정을 다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성년식은 내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오호초 김용수 주무관 '한길 교육상'

제30회 스승의 날 맞아 고성교육지원청 20명 표창



지난 13일 열린 고성교육지원청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30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사기 진작과 스승 존경 풍토에 기여한 고성지역 교육공무원 20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은 지난 13일 학교장 등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은 고성교육지원청 이국철 장학사 등 6명, 강원도 교육감 표창은 천진초 장승호 교사 등 6명, 고성교

육장 표창은 공현진초 한부자 교사 등 5명이 수상했다.

특히 고성교육지원청이 10년 이상 고성에서 근무하고 국가관과 교육관이 투철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수상하는 '한길 교육상'에는 고성중 지상호 교사, 거진중 임태호 교사, 오호초 김용수 주무관 등 3명이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공현진초 박정신 △아야진초 손

재복 △오호초 송은정 △동광중 노은숙 △대진고 조준원 △고성교육지원청 이국철 ◆강원도교육감 표창 △인흥초 박재규 △천진초 장승호 △오호초 김은영 △고성중 윤인숙 △거진종합고 지선미 △동광중산업과학과 박진호 ◆한길 교육상 △고성중 지상호 △거진중 임태호 △오호초 김용수 ◆고성교육장 표창 △인흥초 임종기 △공현진초 한부자 △광산초 양지혜 △간성초 이혜영 △동광초 김민지. 최광호 기자

김광섭씨 역사문화체험 강사로

본지 칼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향토사학자 김광섭씨(46세, 사진)가 현내 청소년문화의 집이 매월 첫째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역사문화체험교실 강사로 활동한다.

김씨는 5월 21일 천학정 숲은그림찾기와 기암괴석 능파대라는 주제로 초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첫 강의를 시작한다.

이후 8월까지 매월 1회씩 선유담, 왕곡마을, 금구도성지, 수타사지, 관대암



등 고성지역의 주요 역사문화 현장을 찾아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역사문화를 강의한다.

최광호 기자

